

1208(목) 디모데후서 1-4장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

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.
현장에서 물러나 삶과 사역을 갈무리하던 바울은
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와 전통을 지키는 일과
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것을 부탁드립니다(1:6-16).

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야합니다(2장).
믿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.
복음을 사수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(2:8,15,23)
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따라 온전한 경건에 이르며
진리를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(2:22,24-25).

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열거합니다(3장).
물질주의와 잘못된 성품, 감정, 욕망, 자만, 쾌락들,
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, 능력이 없음을 한탄합니다(3:5).
그는 거짓 교사들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
성경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
신앙과 삶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권합니다(3:16).

바울은 이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만 합니다.
외롭고, 평탄치 않은 죽음을 예상하는 상황에서도(4:6,9-10)
바울에게는 직무를 다한 자의 후련함, 결연함이 엿보입니다(4:7-8).
평생을 복음으로 살았고,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은
마지막까지 복음을 부탁하며 끝을 맺습니다(4장).

“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
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
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
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(4:7-8)”

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?

- ❶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?
- ❷ 어떤 모습으로, 어떤 말을 남기길 원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디모데후서 1-4장

업로드 자료 ❶ <BIBLE PROJECT 성경개관> [디모데후서 개요 2 Timothy - YouTube](#)